

2017-2020년 <사역연구위원회> 보고서

2016년 연합감리교회 총회는 2016-2020년 <사역연구위원회>가 상정한 청원안(60506-MH-Non-Dis)에 나온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다루도록 위임하였다.

1. <교회신앙연구위원회>와 상의하여 연합감리교회의 안수사역에 관한 신학을 정립한다.
2. 2016년도 <장정>에 나와있는 사역 조직과 앞으로 나올 <일반 장정>에 수록될 사역 조직의 관계를 검토하고 규명한다. 본 위원회는 <일반 장정>의 2장 “안수받은 이들의 사역”과 3장 “감리직” 내용 개발에 필요한 지침과 언어를 제공해야 한다. 본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일반 장정> 작성위원회에 들어간다.
3. 나아가 목회자의 형성과 교육을 검토하여 신학 석사와 연수교육과정을 포용하고, 준회원으로 초기 사역 기간에도 양성이 지속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델을 만든다. 본 위원회는 안수를 고려하는 사람이 사역과 연관된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경우에 공인된 신학교에서 기초 신학 과목에 추가해서 그 전공 분야를 연회 안수사역부가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반영한다.
4. 신학 교육과 사역자 양성의 유형과 기금 출처를 검토한다.
5. 연합감리교회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의 학자금 부채 상황과 학자금 절감 방법을 모색한다.

2016년 결의에 따라 본 위원회는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며 기쁘게 여기는 바이다.
관찰과 분석

1. “<교회신앙연구위원회>와 상의하여 연합감리교회의 안수 사역에 관한 신학을 명확히 한다.”
 - a. 본 위원회는 <신앙직제위원회>와 상의하고 “신성한 신뢰: 연합감리교회 안수 사역의 신학적 틀 (***A Sacred Trust: A Theological Framework for Ordained Ministry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이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연구 보고서는 뒤에 나온다.
 - a. 안수 사역에 관해서 인허, 안수, 연회원이 되는 현재의 방식이 교단의 역사, 정책, 신학과 어긋나 있다는 지적이 이전의 특별위원회와 총회 때마다 나왔었다. 그 결과로 신성한 사역이 방해 받고 있다.
 - b.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본 위원회가 의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대화 - 안수의 의미에 대해서 범 교단적 인 대화를 주도한다.
 - ii. 교육 - 전통과 현재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사역에 깊이 박혀 있는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들을 탐색한다.
 - iii. 다음 단계 - 현재와 과거의 안수 및 인허 사역에 대한 개념에 관해 고민하며

앞으로 나갈 길을 모색하여 인허와 안수 사역과 관련된 교회 정책이 안수 사역의 신학 이해와 맞아 떨어지도록 하는 입법안을 준비하여 2024년 총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 a. 안수 사역에 관해서 성서적, 교회적, 실천적, 그리고 신학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담대하게 표현하여 교회가 지닌 소중한 웨슬리 전통을 찾아 축하한다.
2. “2016년도 <장정>과 앞으로 나올 <일반 장정>의 사역 구조의 관계를 검토하고 규명한다. 본 위원회는 <일반 장정>의 2장 “안수 사역”과 3장 “감리직” 내용 개발에 필요한 지침과 용어를 제공한다. 본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일반 장정> 작성위원회에 들어간다.
 - a. 본 위원회는 첫 두번에 걸친 모임에서 2장과 3장에 들어갈 내용을 만들었다.
 - b. 본 위원회의 대표팀은 총회에서 결정된 <일반 장정>의 초안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교회신앙연구위원회>와 협력하여 <해외지역총회상임사무위원회(SCCCM)>의 모임 때마다 미리 모이는 작업에 참여하였다.
 - c. <해외지역총회상임사무위원회>는 본 위원회와 상의하고 동의를 받아 <일반 장정>의 초안 상정을 2024년까지 지연할 것을 2020년 총회에 제출하였다.
 - d. 2020년도에 <해외지역총회상임사무위원회>가 2020년 총회에 상정한 법안에는 2021-2024년 4개년 <일반 장정> 작업에 본 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엔 <해외지역총회상임사무위원회>와 계속 함께 일하기 위해서다. 두 위원회 모두 <일반 장정>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에 본 위원회가 2021-2024년 4개년 지속되도록 승인해달라는 청원이 들어가 있다.
3. “나아가 목사의 양성과 교육을 검토하는데 여기에 신학 석사와 연수교육과정을 포용하고, 준회원으로 초기 사역 기간에도 지속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델을 만든다. 본 위원회는 안수를 고려하는 사람이 사역과 연관된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경우 공인된 신학교에서 기초 신학 과목에 추가해서 그 전공 분야를 연회 안수사역부가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반영한다.”
 - a. 안수 사역에 관한 신학을 정립하는 일이 목회자 교육에 요구되는 사안들 보다 우선 다루어져야 한다. 본 위원회가 다른 목회자의 배출과 교육은 “신성한 신뢰: 연합감리교회의 안수 사역의 신학적 틀”이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 나와 있다.
4.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 교육의 재정 출처와 형태 검토”
 - a. “<교역자양성기금>을 할당 받는 교단 내 모든 연회들은 <총회고등교육사역부>에

2017-2020년 <사역연구위원회> 보고서

기금 사용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청원 (ADCA 20206)을 채택할것을 제안한다.

- e. 이 지침은 2021-2024 4개년 기간에도 본 위원회가 사역 신학 보고서를 계속 작업해야 하므로 지속되어야 한다.
5. “연합감리교회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의 학자금 부채 상황과 학자금 절감 방법 모색”
 - a. 릴리 재단에서 받은 기금과 협력으로 <총회고등교육사역부>와 은급부 기관인 <웨스페이스>는 목회자 부채와 재무교육 실시를 확대하고 있다. 지원팀이 구성되었고 그들은 목회자들의 재무 이해 수준과 부채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 지원을 통해 목회자들이 재무에 관한 지도력 기술을 키우고 목회자 부채 감소를 할 수 있도록 수많은 프로젝트와 교육 기회가 개발되고 있다.
 - f. 여러 프로젝트 가운데 “우수 목회자 지도력 장학금 (Excellence in Clergy Leadership Scholarship)”이 있다. 521명의 신학생이 지난 3년간 이 장학금을 받았다. 첫해에 받은 장학금으로 수혜자들이 추가 부채를 피한 액수는 총 \$760,338 이었다.
 - g. 이처럼 지원팀이 있어 이 분야의 일을 담당하게 되자 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은 자신의 전문과 능력에 합당한 다른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다. 지원팀은 그들이 지닌 더 많은 자원과 전문성으로 목회자 재무교육과 부채에 관한 내용을 담당하고 있다.
 - h. 이 장학금에 관한 완성된 보고서는 <총회고등교육사역부> 보고서를 참조하면 된다.

결론과 지속적인 연구 요청

범 교단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인 대화가 다음 4년간 필요한데 이는 “신성한 신뢰: 연합감리교회의 안수 사역의 신학적 틀”이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 근거한다. 이 보고서는 본 위원회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청원 뒤에 수록되어 있다.

2017-2020년 <사역연구위원회>가 2021-2024년 4년간에도 지속되기를 요청한다. <사역연구위원회>가 계속되기를 요청한 안건에는 본 위원회에 위임된 세부적인 사항, 과제의 범위, 그리고 재정 출처에 관련된 세부안이 포함되어 있다. (참조: ADCA, 청원 20661, 사역부 -비규율 안건)

2017-2020년 <사역연구위원회> 보고서

신성한 신뢰
연합감리교회 안수 사역의 신학적 틀
<사역연구위원회>, 2019년 7월

요약

2016년 총회의 결의로 연합감리교회의 안수 신학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구성된 2017-2020 <사역연구위원회 (Study of Ministry Commission - SMC)>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교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교회의 신학적인 이해를 심도있게 다루었다. 안수 사역에 관해서 인허, 안수, 연회원이 되는 현재의 방식이 교단의 역사, 정책, 신학과 어긋나 있다는 지적이 이전의 특별위원회와 총회 때마다 나왔었다. 그 결과로 신성한 사역이 방해 받았다. 부활의 사람들인 우리는 웨슬리 운동의 부흥을 바라며, 현재 교단이 처한 위기 속에서 교회의 갱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갖고 이 연구보고서를 제출한다.

연합감리교회의 안수 사역은 성례적이고 성육화적이며 예언자적 본질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사역연구위원회>는 정의한다. 웨슬리 전통의 안수 사역은 은혜와 성결의 뿌리를 두고, 봉사의 자세가 깃들어 있으며, 섬김과 숭고한 성령 운동에 참여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본 위원회가 내린 안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안수는 목회자 지도력에 대한 성스런 신뢰를 외적으로 들어내는 표시이다. 이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안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신하여 사도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면에 잠재된 영적 은혜를 체험한 목회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든 교회의 거룩한 행위이다.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와 성찬에 뿌리 둔 성례의 예물로서 안수는 하나님 선교가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한다.

이런 입장에서 다음의 세가지 핵심 내용을 가지고 대화, 분석, 그리고 실천에 옮기기를 제안한다: (1) 안수는 집사와 장로들이 봉사의 자세로 성약공동체인 “안수회”의 생활로 들어가는 기반을 제공한다. (2) 안수는 성례의 본질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집사와 장로는 양육하고 성례를 집전하는 책임을 갖는다. (3) 목회자를 인허 방식 보다는 안수 방식으로 교회는 모든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입장을 되찾는다.

현재 연합감리교회의 안수 관련 실천은 위의 세가지 핵심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한다. 현재의 안수와 연회원 제도를 바꾸어 “순회 (traveling)” 안수목회자와 “본처” 안수목회자 (집사와 장로) 제도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잘 이룰 수 있다. 신학적인 연구 검토를 심도있게 서로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내려온 사도적 전통의 약속과 희망으로 가득찬 새 미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 보고서 끝 부분에, 우리가 지녀온 역사와 신학이 어떻게 하면 오늘날 세상이 처한 선교적 상황에 맞는 입장과 사역 실천을 창의적으로 재고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교회가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질문들을 제시한다.

머리말

우리는 삶이 힘들 때도 은혜를 경험하며 늘 새로와짐을 체험하는 아름답고 복잡한 전통을 지니고 있다. 평신도가 이끄는 운동으로 태어난 연합감리교회는 보다 더 합당하고 생동적이며 역동하기 위해서 성령의 새바람을 꾸준히 추구한다. 비록 바라는 만큼의 최상을 늘 들어내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모임에서 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세례받은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노력해왔다. 지난 많은 <총회>에서는 안수, 인허, 평신도 목회의 웨슬리 방식을 검토하도록 <사역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책임을 위임하였다. 수십년간 이 과제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보다 더 신실하게 담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리교회의 사역의 범위를 정하고 규명하였다.

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갱신하기 위해서 2016년 <총회>는 본 위원회로 하여금 “연합감리교회의 안수 사역의 신학을 명확히 정립하라는 과제”를 주었다. 우리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안수 사역에 내장된 원칙들을 찾아 드러내고 전달될 수 있도록 부름받았다. 지난 수세기 동안 연합감리교회는 안수 사역의 본질을 다루는데 있어 풍부한 신학과 역사와 정책이 체계적으로 늘 통합되지 않아서 실천의 내용이 바뀌었고, 몽롱한 적도 있었고, 현재에 이르렀다. 물론 좋은 의도로 변화를 시도하며 내려왔지만, 많은 경우 긴급했던 선교적 필요에 대응해서 변화되어 왔기에, 함께 응집하고 조율하며 이해하지 못해서 때론 예상치 못한 내리막길로 가는 결과도 초래되었다.

예를 들어보자. “인허” (licensing)의 확대는 성례의 의미와 안수, 연회원, 그리고 안수회의 성례적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경시켰다.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성례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외의 경우로 삼아 안수받지 않은 본처목사에게 성례 집전을 인허한 것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목회자가 순회하며 치리하는 선교적 차원보다는 개체 교회내에서 행정 쪽으로 교인들의 기대가 더 커졌고, 장로들에게 지불되는 사례비와 경비가 증가되자, 예외의 경우가 아니라 일상화 되어버렸다. 그 결과로 인허가 선교적 도전에서 기능 사역 면으로 바뀌었다. 이런 대응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켰다. 예를 들면, 장로는 여러 교회들을 순방하며 성례를 집전할 책임이 주어졌다. 이런 순방 사역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있고, 선교적 필요에 응답하며, 성례의 사도적 이해를 충분히 따르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안수받은 장로 대신에 인허된 본처목사들이 파견되어 그들이 성례를 집전하게 하였다.

<신성한 신뢰: 연합감리교회 안수 사역의 신학적 틀>를 읽다보면, 인허에 관한 신학적 토론이 빠져 있음을 보게 될것이다. 이런 빠짐은 고의가 아니다. 인허는 웨슬리 유산에 나타나는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 위원회의 의도는 전통적인 혁신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적인 헌신에 이어 신학교육과 상호 책임을 지닌 연합감리교회의 선교로 나가는데 있다.

다른 표현을 쓰자면, 본처목사들은 교회에 “은

2017-2020년 <사역연구위원회> 보고서

혜의 수단”을 선물로 드린다. 그러기에 우리는 본처목사들이 교회에 매일 드리는 신실한 사역을 축하한다. 그들은 부름을 받았고 결실을 맺는다. 실제로, 어떤 연회에서는 본처목사들이 “본처”가 아닌 경우가 있다. 보장된 파송은 아니지만 감리사회(cabinet)에서 파송을 결정할 때 참고로 쓰이는 순회 목사 명단에 그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처목사들이 인종/종족 교회이거나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며 교회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사역을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처럼 안수 사역에 관해 역사와 정책과 신학 사이의 깨진 균형을 보게 되자 <총회>는 이것을 고치라고 하였다. 이런 요청에 응답해서 <안수사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제안한다.

- 1) 대화 - 안수의 의미에 관한 신학적 대화를 먼저 시도한다.
- 2) 교육 - 우리의 전통에 베어있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심도있게 탐구한다.
- 3) 인도 - 현재와 과거의 안수 사역 및 인허 사역의 개념들을 다루어 앞으로의 나아가갈 길을 제공한다.

성서적이고 교회적이며 실천적이면서도 신학적인 바탕에 기초한 안수 사역을 세심히 깊게 검토하고 담대하게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웨슬리 전통의 가장 좋은 면을 천명하고 축하하고자 한다.

영적이면서도 지성 이 두가지 유산에 진실하게 접근해서 나온 이 보고서, 곧 <신성한 신뢰: 연합감리교회의 안수 사역의 신학적 틀 2019년> 가 이미 나와 있는 또 다른 두 자료, <물과 성령: 세례에 관한 연합감리교회의 이해, 2008 (By Water and the Spirit: A United Methodist Understanding of Baptism (2008)> 과 <신성한 신비: 성찬에 대한 연합감리교회의 이해, 2004 (This Holy Mystery: A United Methodist Understanding of Holy Communion (2004)> 와 병행해서 목회자 양성에 필요한 교육 자료가 되기를 기도하며 희망한다. 그리되면 이 보고서는 어느정도 교회 전체의 핵심적인 교재인, <세례, 성찬, 사역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교회신앙보고서 111쪽, 1982)에 제시된 세가지 모델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신성한 신뢰>는 <사역연구위원회>가 수십년간 수많은 회의와 모임과 대화와 문서들을 통해 나온 것이다. 이 보고서는 서술적이고 비판적이면서도 건설적이고, 그렇다고 안수에 관한 신학을 새로 만들지도 않았고, 안수 과정을 개조하지도 않았다. 안수 사역 신학을 명확히 재조명하여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내용을 알리는 일을 추구했다. 대화적인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룰 것이다.

- 안수는 무엇이며 어떻게 정의하는가?
- 안수에 관한 신학은 무엇인가? 왜 이것을 다루어야 하는가?
- 신학적 확인을 하는데 기여한 주된 역사적 통찰들은 무엇인가?
- 안수의 신학과 안수의 실천에서 도전의 주된 요소들은 무엇인가?

-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건설적인 제안을 제공하고 진행하는가?

교회 갱신과 개혁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되어 왔음을 알기에 여기서는 안수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지도력에 관한 감리교회의 신학적 이해를 역사와 현대의 상황적 차원에서 살펴본다.

첫째 부분인 서론에서는, 안수에 대한 웨슬리식 정의를 살핀다. 그리고 두번째 부분에서 “안수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한다. 세째 부분에서는 “안수의 행위”와 안수받은 자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살핀다. 네번째 부분에서는 “안수 사역의 본질”을 소명받고, 준비하고, 형성하고 보내짐을 받는 과정으로 검토한다. 다섯번째 부분에서는 미래의 관점을 위해 과거에 귀를 기울인다. 마지막 부분인 여섯번째 부분에선 몇가지 결론적인 내용과 질문을 남겨 차후 대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웨슬리의 신학을 위한 지침인 성서, 전통, 경험, 그리고 이성 이 네가지 차원에 비추어 연합감리교회의 안수 신학을 면면히 점검하다 보면, 교회적이고 구조적으로도 타당하며 실천 가능한 고려점들이 나오리라 확신한다. 신학과 실천은 “항상 이미” 서로 열려 있음을 알지만 당장 법안을 바꾸어서 조직에 영향을 줄 의도는 없다. 대신에, 앞으로 4년간 상호 협력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2024년 총회에 분명한 길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신학은 기독교 공동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숭고한 신비에 언어를 제공하여 교회를 활기있게 만든다. 성령이 임한다면 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는다 라고 할 수 있다. 안수는 세례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안수 사역은 이 세상을 변화 시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 심오하게 한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명료하게 규명된 안수 사역에 관한 신학은 교회가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이 신학에 근거한 의미있는 선교에 활발히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담는다. 교회는 안수 목회자들에게 선교적 과제를 위임한다. 그들은 신뢰와 상호 책임을 약속한 목회자 언약 공동체에 속한다. 이것이야말로 “신성한 신뢰”이다.

I. 서론

안수는 목회자로서의 지도력에 대한 거룩한 신뢰를 밖으로 들어낸 표시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어진다. 안수는 내면의 영적 은혜를 들어내는 목회자가 하나님을 주도하시는 일을 대변하고 신앙공동체의 사도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모든 교회의 거룩한 행위이다.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와 성찬에 뿌리 둔 성령의 예물로서 안수는 하나님 선교가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한다.

연합감리교인들이 부흥회 차원으로 매년 연회로 모임 때 마다 거행되는 안수식은 교회에 큰 감명을 준다. 성령의 신선한 바람이 불고, 하나님께서 성자들 무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어 함께 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이다. 찬양과 춤과 안수 직전 감독의 물음과 말씀 모두가 주재감독이 회중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소서” 라고 집단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으로 모아진다. 심오한 희망이 이 단순한 간구에 담겨 있기 때

2017-2020년 <사역연구위원회> 보고서

문이다. 세례와 성찬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안수 후보자들이 드디어 집사 혹은 장로의 사역을 담당하게 될 때 함께 모인 모든 평신도와 목회자들은 그들에게 힘찬 박수로 힘을 실어주어 바로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 된다.

교회는 변화를 갈망한다. 웨슬리 전통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처럼 되기를 바라면서 생활과 마음의 변화 경험을 늘 추구한다. 이런 변화를 감당하도록 안수 목회자는 그에게 주어진 독특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연회 기간에 개최되는 안수식은 교회가 목사에게 부여한 기대와 신뢰와 사역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다. 그런고로, 안수는 이 예배와, 교회 생활과, 안수받는 이의 삶에 신비와 거룩을 밝히는 순간이면서 동시에 일상의 삶에도 이런 신비와 거룩이 들어남을 뜻한다. 그렇다. 나날의 생활이 신비와 거룩한 삶이다. 성령께서 가까이 다가가 부름 받은 자들과, 신앙공동체와, 우리 한사람 한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신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담대하고 겸손히 참여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물이고 사역으로 부름받아서 찬양한다. “우리들이 거둔다서 흠이 없게 하시고” (찰스 웨슬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 4절” 1747). 우리가 은혜의 도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거울이 되어 이 세상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게 우리의 과제이다. 존 웨슬리의 설교에 나와 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서적 성결이 이 땅에 퍼지도록” 보내진 사람들이다. (존 웨슬리, “성서적 그리스도인” 1744).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의 증거자들이다.

“사람들은” 세례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구성원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고 사역하도록 부름받는다. (평신도 (laity)란 단어는 “사람들”이란 뜻이 담긴 laos에서 유래한다). <성령과 세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개인 홀로 또한 함께 하는 사역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의 활동이며... 이는 하나님은 물론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근거가 되며, ... 이것이 바로 “만민 제사장”의 개념이다” (56항). 세례받은 자들의 공동체는 정기적으로 성찬을 통해 새로와지고 자라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성취되도록 나아간다.

교회는 세상의 변화를 위해 존재하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는 뜻은 아니다. 평신도는 특히 세상과 교회의 교차점에서 “감사와 예배, 증거와 봉사, 축제와 제자도”가 묻어있는 교회의 보통 생활에 참여한다 (2016년 <장정> 126항). 평신도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닮고 자신들의 복음적 신앙 경험을 서로 나누어”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가 부르는 곳이며 어디서든 봉사하고 증거” (127, 128항) 하는 본보기가 된다. 그렇기에 평신도들의 사역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리

교인들은 잘 알고 있다. 감리교 운동의 빠른 성장은 초기나 지금이나 대부분 그리스도에 감명받은 평신도들 덕분이다.

평신도들 중에는 안수 목사로 부름받는 사람들이 있다. 평신도와 목회자 모두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지만, 안수 목회자들은 교회와 새로운 관계 속에서 평생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안수 목회자는 교회를 섬기는 틀인 “명령”의 뜻을 지닌 목회자 규칙을 자진해서 따르는 세례교인이다. 사실, 안수라는 단어의 어원은 “명령”(ordo)이다. 여기서 겸손과 자신을 비우는 섬김의 자세는 빌립보서 2: 6-11에 가장 잘 나타난다. 교회에 의해 위임된 안수 목회자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당대의 선교와 사역을 돕는다. 안수받은 사람은 이처럼 목회자 규칙에 스스로 들어가서 연회원으로서의 책임과 영성 개발에 꾸준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전하며, 봉사하고 정의 활동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청지기로 하나님을 섬긴다.¹

복잡한 개념들과 용어들

연합감리교회에서 집사와 장로는 둘다 안수직에 속하지만, 정회원 장로만이 안수 사역의 책임을 감당한다. 이 책임으로 교회의 다양한 사역 가운데 교회 생활에 필요한 행정 시간이 어쩌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다보니 역할의 중복된 층이 생기고, 목회자로의 정체성과 기능에 의도한게 아니지만 혼란을 가져온다.

역사적으로 “안수회”는 교회가 생기고 첫 천년에 생긴 수도원 전통에서 나왔다. 특정 수도회마다 설립 목적이 분명하고 그 단체에서 정한 규범에 따라 수도자들이 생활한다. 신앙 수호, 자의 생활, 복음 전파, 교육의 목적을 둔 수도회를 예로 들 수 있다. 이같은 단체들은 소속 회원들이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렌즈를 제공한다: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도적인 사역을 보장하고, 유지하고, 확장하며, “그리스도의 일군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온 세상에 사도적 선교를 담당하고 성례를 집전 한다 (고린도전서 4:1).

오늘날 안수를 받는다 함은 초대 교회의 전통인 장로와 집사의 삶의 방식을 현대의 신앙 공동체가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장로는 개체교회에서 필요한 영적 생활을 지도하지만 집사와 장로 모두 사도적 전통에 근거해서 교단의 안수직으로 이어졌다. 장로와 집사 이 두 직제는 각기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사역을 감당하여 성령으로 교회 생활이 활기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오가며 함께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이런 안수직에 대한 이해는 모든 사역을 넘나든다.

안수직이 혼합된 의미로 쓰여졌을 뿐 아니라, 목회자의 개념도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전개되다 보니 오늘날에 혼선을 초래 했는데 그 모순을 역사적 흔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940-68년 기간에 감리교회는 “본처장로 (local elder)”와 본처집사 (local deacon)”라는 이름을 없앴다. 그들은 일정한 교육을 받았고 안수 받았지만 “순회”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1 2016년 <장정>에서는 “봉사”를 장로와 집사 모두의 기능으로 포함시킨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봉사”를 기능의 차원보다는 사역의 자세로 이해한다

2017-2020년 <사역연구위원회> 보고서

연회원 자격이 사분지 일에 해당되거나 지방회에 속하였다. 1968년 이후에 “평신도목사 (lay pastor)”가 생겼다가 곧 바로 “인허된 본처목사 (licensed local pastor)”로 바꾸었다. 곧, 안수받지 않은 사람이 연수교육과정의 첫해를 마치지 않았을 때도 성찬 집례를 할 수 있도록 파송을 받고, 비록 특정 제한은 있지만 연회원이 되었다.

게다가 혼선이 가중된데에는 목회자 (clergy)와 평신도 (lay)가 교회를 인도했던 역사적 역할이 연회에 서 “목회자 위치를 갖게 된 목사 (pastor)란 용어를 쓰게 되면서 부터다. 역사적으로 보면, 안수받은 사람을 “전도인 (precher)”나 “교역자 (minister)”라고 했지, “목사 (pastor)”라고 부르지 않았다. 권사들이 개체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집사들이 교인들을 돌보며, 전도자들은 순회하면서 성례를 집전하고 혼인을 주례했다.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이 본 보고서에서 알리고자 한 풍부하게 얽힌 전통이다. 이러한 내용을 더 깊고 분명하게 다룰 것이다.

이와같은 과거를 돌아보며,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두가지 사건에 주목하겠다. 곧 18세기 영국 교회로부터 미국의 감리교 운동이 분리된 사건과 20세기 현재의 연합감리교회로 통합하게 된 사건이다. 그리고 “인허 (licensing)”는 원래 정부에서 사용하는 언어이고 “안수 (ordination)”는 교회 언어인데 이 두가지의 복잡한 관계의 흔적도 찾아보겠다. 이런 상황에서 감리교회가 처음 개혁 운동에서 시작해서 대형 교단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목회자” “순회” “본처” 개념이 실천 사역에 도입되었다.

비록 우리의 신학적인 규명이 미약하고 모호해왔지만, 오늘날 연합감리교회의 안수 사역은 성례적이고, 성육신적이며, 예언자적인 본질이 있음은 분명하다. 웨슬리가 믿고 행했던 성결에 뿌리를 둔 안수 사역은 세상 변화를 추구하는데 거룩하고 숭고한 성령 운동에 함께 신신히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도 인정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혼돈에서 질서를 이루어 창조를 하였듯이, 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명하시고, 세례받은 공동체를 새롭고 합당한 사역으로 초대하며, 성직자를 ‘규칙의 삶’으로 삼으시어, 우리 모두를 새 창조물로 인도하신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의 의미를 갖고 세가지 건설적인 신학적 주장을 제시한다.

- 1) 안수는 장로와 집사를 “안수직”으로 알려진 섬김의 자세와 규칙의 삶으로 불러주신다.
- 2) 안수가 지닌 성례의 속성상 집사와 장로는 교회에서 양육과 성례의 생활을 인도하는 책임을 갖는다.
- 3) 목회자에게 인허가 아닌 안수를 줌으로 교단은 모든 교회와의 관계에서 역사적 신학적 위치를 재 천명한다.

성례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목회자의 지도력에 인도되어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안수가 그만큼 중요하다. 초대교회와 사도적 본질에 근원을 둔 교회는 성례와 말씀에 기초한 공동체로 그 정체성을 지녔기에 안수가 중요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우리 가운데 아직은 아닌, 완전히 환히 밝아지는 새 날을 그려 본다. 안수 목회자는 성령으로 기쁨부음

을 받아 교회가 이와 같은 미래로 나아가도록 인도한다.

II. 안수의 의미

안수는 거룩한 신뢰의 외적 표상이다.

존 웨슬리는 성례를 영국 전통을 따라 내적이며 영적인 은총의 외적 보이는 표상이라고 표현하였다 (공동기도서 [The Book of Common Prayer]). 믿는 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세례와 성찬 예식을 치를 때 외적 표상인 물과 빵과 포도주는 영적 경험을 갖게 한다고 보았다. 안수는,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성례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매우 성례적이다. 새로우며 영적 현실을 나타내는 외적 표상이기 때문이다. 안수는 안수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성직자로 사명을 감당하게끔 드러난 성령의 효율적인 표상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안수는 은총의 도구이다. 안수는 교회가 한 후보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시간을 드려 지원하고 양육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므로 안수 그 자체가 은혜이다.

안수는 성삼위일체, 교회, 그리고 안수받는 사람간에 거룩한 신뢰를 갖게 한다. 교회는 안수받은 사람들을 말씀 선포와 성례 집전과 사도적 전통의 관리인으로 이해한다. 이런 거룩한 신뢰이기에 안수는 성령으로 부름을 받은 안수받을 사람을 형성과정을 거치면서 교회가 인정한다는 뜻이다. 안수사역으로 부름은 교회사역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드러낸 특별한 양식의 삶으로 나아가감이다. 안수는 세례받은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자세로 새 정체성을 갖고 안수받은 사람이 안수직분에 따라 규정된 봉사의 생활로 나아가게 한다.

안수의 거룩한 신뢰는 안수를 받을 때까지 전 과정에 적용되어, 안수후보자가 연회 때 역사적 질문을 할 때 형성되고, 안수식에서 교회와 맺는 언약을 감독의 질문 심사를 마치면 그 신뢰가 완수된다. 일단 안수후보자들이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연회 참석자들은 모든 교회를 대신하여 안수 사역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다 (2017-2020 안수규칙서 [Ordinal] 19항).

안수받은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자”이고, “대접받기 보다는 섬기도록 부름을 받는다”. 그들은 삼위일체 신앙과 성경을 온전히 믿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기도에 신실하고 영성 훈련이 삶 자체가 되어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화, 정의, 자유를 추구하도록” 인도한다. 그들은 연합감리교회에 충성하겠다고 선언하는데 그 선언의 내용은 “안수직, 예식, 교리, 훈련을 받아드려 잘 지키고”, 동역자 및 감독자와의 상호 책임을 준수하며, 그들에게 해당되는 안수직에 따른 생활 규칙에 따라 기도와 공부와 예배와 봉사를 꾸준히 하겠다는 약속이 들어간다 (안수규칙서 19-20항).

평신도와 안수받은 사람은 서로 이처럼 거룩한 신뢰의 언약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안수식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감독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서 집사와 장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후보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안수규칙서 15항, 28항).

2017-2020년 <사역연구위원회> 보고서

안수는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응답을 들으신다고 믿는다. 모든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와 세속적인 뜻과 갈망이 지배하는 세상간에 생기는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신실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교회는 온 역사를 통틀어 시대에 맞는 지도력을 하나님께 간구하여 왔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도력을 위해 안수사역자를 부르시어 보내주신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절실이 필요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시고, 준비시켜주시며, 안수사역의 후보자로 삼으셨다. 안수식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인정하고 받는다. 감독이 안수받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의 역사를 요청하는 기도는 바로 사람들의 기도이다. 안수식에서 걸음으로 보이는 행위는 감독이 하지만 안수 그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후보자와 교회가 시간을 드려 심사숙고하며 드렸던 기도의 완성이다 (안수규칙서 6항).

안수는 성령이 이미 활동하고 있고 또 계속하고 있음을 알리는 여러 방식의 일부에 해당된다. 안수받은 목회자와 교회 생활에 꾸준히 드러난 많은 성령 활동 방식, 곧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성령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3:20). 안수는 이 세상을 위해서 부름받은 축복의 통로였으나 잘못가기도 했던 사도적 일들을 준비된 안수사역자들이 인도하고 안내해서 교회를 통해 들어난 삼위일체의 모습이다.

안수는 모든 교회의 거룩한 행위이다.

연합감리교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인식하기 전부터 계신다는 선재 은총을 믿는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어 그리스도를 통해 대부분 다 드러난 은총으로 우리는 악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온전히 반영하는 삶을 살아간다. 안수식은 외적으로는 징표이지만 내적으로는 영적 은총을 상징한다. 이 은총은 개인과 교회가 함께 인식한 하나님의 소명에서 들어나고, 안수사역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존재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거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역에서 구현된다 (2016 제자부 출판, <웨슬리의 역사적 질문>, 336.3항). 은혜 가운데 안수 사역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훈련된 영적 생활을 하면서 모든 신실한 사람들과 교통하며, 마치 포도나무 가지 처럼 열매를 맺도록 세상에 보내진다 (요한복음 15:5).

연합감리교회는 모든 교회의 일부이기에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하는 성례를 공유하여서, 사역 방식이 다르더라도 세례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성찬이 그리스도의 임재임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감리교회의 안수식을 교회연합이 인정한다. 다시말해 다른 교단들도 연합감리교회의 안수직인 집사, 장로, 감독에게 직분에 따라 주어진 독특한 역할을 인정하고, 우리의 성례 의식을 존중하여 다른 교회들과 관계를 맺고 사역을 함께 하고 있다. 교회연합 차원에서, 안수사역자들은

모든 교회의 대사로 섬길 수 있다 (세례, 성찬, 사역 [고등교육출판부], “성찬” 29 항). 연합감리교회가 교회연합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선교와 복음 전파 표현 방식이 다른 교단들과는 다르지만, 우리의 사도적 전통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 한결같기 때문이다.

안수는 사도적 사역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표하는 목회자에게 힘을 주신다. 사도적이란 초대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 기초한 신앙과 역사를 뜻한다. 교회에서 사도적 증거라 함은 육신으로 이 땅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한다는 뜻이며 (마가복음 1:15), 성령에 힘입어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준비 시키시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땅과 사마리아와 이 세상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일이다 (요한 1:8). 사도들이 해왔던 행적을 따른다 함은 교회의 사도적 증거가 끊임없이 선교적이라는 점이다. 교회 그 자체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계속 보내는 공동체이다 (2016 제자부 120항). <사랑으로 보내며 (Sent in Love)> 편에 기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회가 사도성을 유지하려면 믿음과 실천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관심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선교적 관점에 대한 관심과 잘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이 복음으로 세상을 접할 때에 교회가 계속 개혁과 갱신을 해야 하며,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전통에 근거한 혁신”은 교회로 하여금 복음이 지닌 생명의 진리를 신선한 방식으로 새 사람들과 새로운 곳에서 믿는 자들이 전파할 수 있도록 한다 (56쪽).

성령의 인도로 안수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현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도적 증거를 명확히 하고 포용하도록 돕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적 삶으로 변화된 관계를 맺고, 선교적 참여로 새로와진 세상, 곧 예수가 선포한 나라이다.

교회는 ‘~으로 부터 부름받다’의 뜻이 담긴 헬라어 ekklesia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세상이 되도록 부름받은 몸으로 이해하면, 안수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독특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이다. 예수께서 공생애 때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시 들어나게 하기 위해서 안수받은 사람은 교회와 교회를 통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약속을 대표하는 상징이자 표시가 되어 섬기는 사람이다.

평신도와 목회자가 함께 하는 일은 이 세사살이에서 그리스도 사역을 서로 공유한다는 표현이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주어졌다 (에베소서 4:2). 이런 열매와 은사들은, 믿음과 지식의 일치로 교회를 이끌며, “그리스도의 충만 하심의 경지에게까지” 자라게 한다 (에베소서 4:13). 성서에도 분명이 나와있듯이, 말씀선포, 전도, 예언, 가르침, 권면, 관대, 그리고 지도력을 포함한 영적 은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평신도에게 주어졌다는 점이다. 그런

2017-2020년 <사역연구위원회> 보고서

고로, 몸의 모든 지체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교회 생활 치리에 담당된 몫을 나누고, 교회의 성례 활동도 몫을 공유한다. 이처럼 교회의 사역 내용들이 나누어지거나 안수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으나, 안수 목회자는 이런 모든 사역을 대표자 자격으로 이끌어간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일반 사역으로 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대표할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교회가 이를 인준한다. 이런 대표격 사역은 교회의 모든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모델을 만들고, 관리하고, 인도하며, 동기부여하고 힘을 실어준다. 대표격 사람에게 주어질 안수직은 ...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임을 인정하는 동일한 세례에 기초한다 (물과 성령 57항).

제자 한사람 한사람 일상생활과 복음증거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처럼, 안수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으로 부름받고 독특한 대표적 사역이 주어진다. 안수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선택받아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고, 회중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겸손히 자신을 드러낸다. 이런 대표성은 (<성찬의 신비> [Table in This Hope Mystery] - THM) 신학에 깊이 묻어 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재현하는 것이지 반복하는 게 아니다.... 성례의 은총으로 양육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세상 변화의 도구가 된다” (8-9쪽).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주시며 “성령을 받아라” 하셨다 (요한복음 20: 21-22). 사도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선교의 동참에서 나오는 것으로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28: 19). 모든 세례와 성찬식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교회가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안수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성찬과 세례를 베푸는 권위를 교회로부터 위임받는다. 성례를 베풀고 교회의 사역을 인도하라고 교회가 인정한 이 권위는 남을 지배하는 힘으로 여기면 안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사도적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특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세례와 성찬에 뿌리를 둔 성례로서 안수식은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선교사역의 증거이다.

안수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안수식으로 알려진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게 된다. 이 안수식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우리에게 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눌 성물인 빵과 포도주에도 성령이 임하는 기도, 곧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이 되시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의 내용으로 드러낸다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10쪽). 성찬을 받기 위해 모

일 때마다 회중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9쪽). 안수식에서 안수받은 장로와 집사들이 회중의 기도를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럼 우리는 세상에 드리는 이중으로 변화되는 대리인이 된다. 장로 및 집사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봉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도록 하는 성례전을 주어진 안수직에 따라 인도한다.

성례로 잘 드러난 그리스도의 삶으로 새롭게 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 세상에서 담당하게 된다. “교회 생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교회가 동참하는 선교는 죄에 물든 세상에 구원의 필요 가능성을 소통하는 것” 임을 우리는 믿는다 (사랑으로 보내며 17쪽, 40항).

교회가 그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여 세상 변화의 도구가 되려면,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 평신도와 목회자 모두 만인 사제이지만 각자에게 주어질 독특한 역할로 교회의 선교를 담당한다. 4세기 제2차 공의회에서 천명된 고백 (사랑으로 보내며 17항)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사랑이 네가지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연합감리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1. 하나님의 구원 사랑은 선교적 공동체에 힘을 주신다 (사도성).
2. 하나님의 구원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다 (보편성).
3. 하나님의 구원 사랑은 변화의 힘이 있다 (거룩함).
4. 하나님의 구원 사랑은 공동체를 만든다 (하나됨).

이처럼 교회가 고백하고 제시한 네가지 측면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사역할 때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돕는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말한다.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로 이 세상이 되어가는데 필요한 사도적 증거자로서 교회를 인도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화된 삶을 갖도록 포용하는 교회로 이끄는 사람이다.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는 개인과 사회의 성화를 추구하며, 은혜 충만한 순례자의 삶으로 사랑 안에서 온전을 향해 나아가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은혜 충만한 변화의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는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기도문에 들어난 “우리가 하나됨 같이 그들도 하나되는” 사랑을 세상이 믿도록 교회를 이끌어가고 부름받은 사람이다 (요한복음 17: 21-22).

안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행해지고 있음을 증거 한다. 목회자의 이 두가지 안수직은 서로 협력하면서도 각기 독특한 은사를 갖고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서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서 섬기는 동시에 교회 스스로도 변화되도록 한다.

2017-2020년 <사역연구위원회> 보고서

안수받은 집사와 장로에게 부여된 권위가 결코 어떤 누구라도 지배하는 권력으로 삼으면 안된다. 교회는 이런 자세를 잘 지켜왔다. 예수께서는 공생애 동안, 그리고 그의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나눌 때에 섬기는 자세를 보이셨고 (누가복음 22:27),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우리에게 섬기는 자의 자세로 모범을 보여주었다 (요한복음 13: 15). 안수받은 집사와 장로는 그들이 봉사의 사역자임을 확인하는 의미로 복종의 멍에를 상징하는 스톨을 받는다. 봉사는 물론 예수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며, 특히 안수받은 목회자에게는 장로나 집사로서 그들의 안수직 규칙에 정해진 봉사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섬김이 기능이 아니라 자세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뜻을 지닌 희랍어 laos과의 관계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여, 교회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III. 안수식에서 들어난 징표 두가지

제자화의 목표는 모든 힘과 열정을 부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선교를 이 땅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다운 삶을 누리는데 있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훈련을 실천하고 은총의 도구로 준비되면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할 줄 알게 된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방식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안수후보자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안수를 통해서,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교회는 이 권위를 인정한다. 이런 보완적인 내용이 예식에 들어가 있다. 안수식 순서에 두가지 징표를 드러내는 부분이 있다. 첫째가 안수받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전능하신 하나님, 000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서 [장로 혹은 집사]의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베푸소서” 라고 기도 드리는 부분이다 (안수규칙서 25항, 28항). 안수후보자가 되도록 만드셨고 이끌어 주셨고 준비시켜 주셨던 그 성령이, 이제 감독이 회중 앞에서 이런 의식을 행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다. 감독이 안수후보자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은 교회 지도자에게 베푸는 의식으로 전수된 사도적 전통이다 (디모데후서 1:6). 안수후보자의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는 옛적부터 내려왔는데 안수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은사라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이 의식은 안수식에서 기도의 필수 요소로 간주된다. (안수규칙서 8항)

안수식에서 두번째 의식은 감독의 손이 새로 안수받은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이다. 이같은 두번째 의식은 새로 안수받은 사람이 장로 혹은 집사로 “권위를 취함”을 표명한다. 첫번째 의식으로 감독이 안수후보자의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가 안수식에서 성령의 역사를 표방한다면, 두번째 의식으로 감독이 새로 안수받은 목회자의 손을 잡음은 그의 목회자 사역을 인정하는 교회의 행위이다 (안수규칙서 8항). 그리하여 안수는 다음과 같다.

안수는 교회 생활에서 새 역할과 동시에 사역의 특정 형태의 지도력의 권한을 갖게 한다. 새 역할은 ..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와 세상살이를 위해 세례받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지도하는 소

명에 해당한다. 권한은 복음의 신비로운 청지기적 삶과 세상을 향한 교회 선교를 위해 주어진다. (안수규칙서 7항)

안수받은 목회자는 안수회 (집사회 혹은 장로회)에 입문한다.

안수를 받고 교회 생활에서 감당해야 할 새 역할이 주어지면 안수식 때 받은 “안수직”에 해당하는 안수회에 입문한다 (안수규칙서 6-7항).

안수의 표시는 ... 세례와 같아서 졸업이 아니라 안수받고 난 후 속하게 되는 성약공동체인 안수회에서 정한 생활 방식의 첫단추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생활 방식은 해당 안수회의 성약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성약으로 성직자들은 세상을 위한 교회 생활에서 해당 안수회 소속 형제 자매들간에 세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서로 돌봐주며 서로 책임을 진다. (안수규칙서 6-7항).

안수규칙서에 보면 안수받은 집사와 장로의 사역을 “생활과 일 규칙”으로 설명한다. 안수받은 이에게 해당된 안수회가 정한 생활규칙은 교회와 세상 사역의 접근방식에 관한 윤곽을 보여주는 렌즈 역할을 한다.

이처럼 안수를 받고 특정한 사역으로 입문한 “안수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양심적인 삶을 살고 복음을 선포하여 세상이 구원받는 날까지 헌신한다” (2016 총회제자부 303.1항). 그러므로 집사 혹은 장로로 안수받고 그 해당 안수회에 입문은 일생에 오직 한번 뿐이며 되풀이 할 수 없다. (2016 장정, 303.3항). 안수받는다 함은 전 생애를 드러서 정해진 안수직에 해당하는 일을 위해 교회와 특정한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섬기는 새로운 정체성 확립의 계기로 삼는다. 그러므로, 안수받은 집사와 장로의 안수직은 둘다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상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상당한 신뢰를 갖는다.

안수받은 집사

집사로 안수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비와 정의 사역을 하도록 이끌어 가는” 권한을 교회로부터 부여 받는다 (안수규칙서 25항). 집사의 사역은 교회와 세상간을 서로 연결시키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집사의 직분과 일의 내용은 안수받을 때 감독의 후보자 질문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안수받은 집사는 그리스도의 섬기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봉사하도록 믿음 공체 생활을 이끌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도록 인도하고, 제자들이 증거하고 봉사하도록 양육하며,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세례식과 성찬식 때에 장로와 파송 받은 본처목사들을 보좌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입은 상처와 희망을 교회에 잘 알리고, 모든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병들고, 억압당한 사람들이 힘들고 개인적으로 희생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위한 봉사와 정의, 해방과 화해 사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이것이 집

2017-2020년 <사역연구위원회> 보고서

사에게 주어진 생활과 일 규칙이다 (안수규칙서 23-24항).

성서적으로 보면, 집사 안수직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기독교 공동체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곤경에 처하자 이들을 위한 구제와 정의 사역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회가 직분을 만들었다. 스테반을 포함하여 일곱명의 일꾼이 여기에 나온다.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신망받는 사람들”이었다. 사도들은 그들을 앞에 세우고 집사 직분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손을 얹어” 안수하였다 (사도행전 6:6).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은 원래 주어진 사역 내용 그 이상으로 성경을 잘 알아서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여서 집사의 역할이 신앙 공동체 경계를 넘어 주변 세상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널리 알리는 모델이 되었다. 그의 신실한 증거를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과 행동과 입장을 잘 나타내서 봉사의 사역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일깨운다.

집사는 말씀, 자비, 정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안수받는다. 그 가운데 안수받은 장로에게도 주어진 말씀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으로 세상에서 구제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지는 예언자적 갈구와 교회가 참여하도록 이끄는 방식이다. 웨슬리의 사회 성화에 관심을 갖고 집사는 예수가 품었던 구제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어”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역을 담당한다 (이사야서 61:1, 누가복음 4:18). 집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교회가 천국을 이루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히랍어로 diakonos는 밥상을 차리는 종의 역할, 곧 밥상을 차리고 앉을 자리를 마련하는 역할을 뜻한다. 그런고로, 이 또한 성례적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나 물론 집사와 장로간의 역할은 다르다. 현재 집사의 역할 중 성례를 행할 때 장로를 돕는 일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성례를 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확대되어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되어, 교회 안에서 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처한 곳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변방으로 밀린 사람들에게 까지 확대되었다. 이런 상황이 안수를 받은 집사도 성례를 집전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가 되었다.

안수받은 장로

안수를 받은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교회 생활을 치리하는” 권위를 위임받는다 (안수규칙서 28항). 장로의 사역은 사도적 전통의 연장선이다. 장로의 사역은 안수 받을 때 감독의 후보자 질문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장로는 그리스도와 온 교회의 사역을 공유하도록 부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세례와 성만찬 등 성례를 신실히 집전하며, 회중을 예배와 기도로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도록 사람들을 이끌며, 목자적인 교회운영을 담당하고, 연대 관계를 잘 맺으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상담하고, 회의

옹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선교에 동참하도록 인도하며,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와 평화와 자유를 추구하고, 교회 치리와 교회 안에서 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에 책임을 진다. 이것이 장로에게 주어진 생활과 일 규칙이다 (안수규칙서 26항).

예수는 공생애 초기부터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시고, 준비시켜 세상으로 보냈다. 주님의 삶과 부활의 증거자들로서 (사도행전 1:21-26), 사도 (히랍어로 보냄을 받은 자)들은 믿는 사람들과 일종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을 가르치고, 교제를 나누며, 함께 빵을 떼며, 기도하는 생활을 일구었다 (사도행전 2:42).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 장로 (히랍어: presbyters)를 세워 본인의 부재시에 교회를 치리하게 하였다 (사도행전 14:23).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마음을 닮고자 했던 목사로서, 좋은 목자로서 (요한복음 10:11), 장로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지도하고, 준비시키고,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위에서도” 이루어가는 사역을 담당하게 하였다 (마태복음 6:10). 장로의 사역은 이 세상을 위해 오시고 구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이끄는 일이었다.

장로는 말씀, 성례, 그리고 치리를 하도록 안수받는다. 집사와 공동으로 나누는 사역은 말씀 사역으로 역사적으로는 설교 사역으로 이해되어, 다시말해,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통해 알게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실재를 선포하는 설교 사역을 말한다. 장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돕는 책임을 갖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에게 들어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들을 증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개인과 화중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성례가 기독교 신앙과 생활에서 중심에 자리잡게 되면서, 장로에게 맡겨진 우선 책임은 성례 생활이 그리스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증거하는 방식이 되도록 교회를 돕는 것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왔다. 교회 생활의 치리사역도 아주 중요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풍성히 마련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영적 생활이 그리스도 제자들 사이에 일어나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그들이 갖출 수 있도록 건강한 영성의 삶을 개발하는 교회치리가 장로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연합감리교회 전통에서 감독은 새로운 직제로 안수받지 않으며, 이들은 많은 다른 교단에서도 우리와 같다. 연합감리교회 감독은 장로 가운데서 선출되며 말씀과 성례와 치리사역의 새로운 표상으로 성별된다. 사도 시대부터, 지도자들은 교회 전체를 다스리는 책임 (episcopos)을 맡았다 (디모데전서 3). 감독에게 주어진 기본 은사들 중 하나는 “그리스도 몸의 일치를 표현하고 보호하는 일이다” (고등교육사역부, “사역” 23항). 감독의 성별식 때에 새로 선출된 감독의 사역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신앙을 지키고, 일치를 추구하고, 교회

전체의 법을 따라 실천하며, 교회 생활과 온세상에 선교를 감독하고 지원한다. (안수규칙서 59항).

IV. 안수 사역의 본질: 부름받고, 준비하고, 형성된 후 보내짐

안수사역자는 하나님과 교회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영적인 은사, 지식, 안수사역자에게 부여된 특별한 일에 필요한 능력을 검증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쳐 소명으로 받아드린 사람이다. 그리고 안수사역자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개인의 품성, 그리고 이 세상의 선교에 담담히 나갈 의사가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안수사역자는 부름을 받고 이에 응답하여 준비하고, 형성되어 보내짐을 받은 사람이다.

안수 사역으로 부름을 받다

라틴어 *vocare*의 의미는 “부르심” 혹은 “소환”이다. 천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나아가는 사람이 지닌 직업의 표현이다. 부르심은 한 인간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인 내적 성향이다. 세례받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닮으며, 복음에 들어난 주어진 은사로 형성된 삶을 살아가면서 꾸준히 헌신하여 복음 증거와 봉사의 삶을 분명히 이해하며 실천하는 사람이 부름을 받는다.

안수 사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은 첫째로, 성령에 의해 이끌리어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라는 한 개인이 경험하는 내적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안수 사역으로 부르는데 한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안수 사역으로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확언을 경험하고 인도받는다. 웨슬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역에 들어난 은사와 은총의 표적들,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의 삶에 드러난 성공의 증거들에서 들어난다 (존 웨슬리, 목사에게 드리는 글, 1756).

둘째로, 교회도 부르심을 받는데 내적 부르심을 추구하는 사람을 교회가 확인하는 전통에 따르며 외적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이런 확인은 안수 후보자가 파송된 순회 사역을 감당하는 최소한 1년 걸리는 “시험 혹은 검증” 기간에 일어난다 (목사에게 드리는 글). 오늘날 이같이 교회가 치루는 외적 부르심에 속하는 확인작업은 과연 후보자가 연합감리교회의 안수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 더 분명히 알아보도록 정해진 단계를 밟는다. 안수사역으로의 부르심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와 교회를 대신해서 일하라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때론 후보자가 다른 연회 혹은 어떤 다른 교단에서 자신의 소명을 헤아리는게 좋은지도 모른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한 사람의 생애에서 안수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준비하고 형성되는 평생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부르심이 안수사역의 동기가 될 수는 있으나, 준비하고 형성하는 과정은 안수사역자의 “사랑의 끊임없는 노동”이라고 웨슬리가 묘사한 과정에 속한다 (목사에게 드리는 글).

평생 배움으로 갖추다

앞서 기술 되었던, 은사를 지닌 지도자는 사람들과 공동체들을 성숙한 신앙의 경지, 다시 말하면 성숙한 제자로 까지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성자”와 같은 갖춘 사람으로 기대된다. 에베소서 4:14에 의하면, 성숙한 제자는 “사기치고” “속임수”로 헤메는 사람들을 알아차리어 그들을 인도하여 한바자국 더 나아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

웨슬리와 애즈버리 모두, 전도자와 목회자가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 하려면 갖추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 점을 강조하였다. 매년 공부해야 할 책 목록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이런 실천이 오늘날 연수교육과정으로 발전되었다. 우리의 전통에 유지되어 온 감리교 창시자들이 지녔던 기본 전제 조건으로, 목회자는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성서, 일반 교회 전체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실천 사역에 관한 근본 이해가 필수이다. 그 결과로, 오늘날의 연수교육과정과 신학교육에서는 목회를 천직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에게 준비 과정에서 꼭 필요한 최저 필수과목을 제공한다. 그 후 모든 목회자는 평생 배움에 헌신하여 성장이 필요한 분야를 꾸준히 찾아 개발할 것을 교회는 기대한다.

사역을 통해서 형성되다.

<목사에게 드리는 글>에서 웨슬리는 “올바른 의도”를 갖고 하나님과 이웃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모든 걸 삼킬만큼, 온통 가질만큼,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직자는 “거룩하고 천국과 같은 성품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성직자의 생활은 “사랑의 끊임없는 노동, 곧,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이어야 한다.

온전히 마음이 충만하고 사랑의 끊임없는 노고를 유지하려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평생 형성 과정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안수사역으로의 소명은 교육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교회 생활에서 계속 탐구되고 발전해야 한다. 이런 과정은 안수받기 전에 후보자 단계와 준회원 단계에서 일어난다. 이 과정은 수년이 걸리는데, 그 이유는 파송 받기 전에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배우기 위해 목회자를 돕는 과정이 있고, 이 과정을 통해 배운 바와 되고자 하는 바가 일치되어 안수받은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개인적이며 공동체의 영성 실천을 정립하기 위함이다.

깊고 원숙한 사역은 성숙시킨 지식과 기술과 믿음과 성품의 생활로 이어지는 헌신을 병행하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다. 그러려면 꾸준히 지적으로 성장하고 공동의 영적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지적 성장과 영적 성장은 둘다 소명을 유지하고 사역을 평생 감당하는데 필요하다. 해당된 안수회와 교회에 책임을 지고 연대하는 면도 필요하다. 늘 존재하고 유지시키는 성령의 힘과 선교적 봉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함을 장기적으로 겸손히 그리고 깊이 알아갈 의도가 있어야 함도 요구된다.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고 보내진다

이 세상 안밖으로 하나님의 사도적 선교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 모든 교회의 존재 이유이므로 연합감리교회의 안수사역자들도 소명의 가장 핵심으로 이런 선교에 보내진다. 장로들은 순회를 통해 선교에 동참하고 담당할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도록 인도한다. 집사들은 사역의 형태와 장소에 따라 규정되어 교회와 세상에 있는 해당된 선교사역에 파송되어 일한다. 이것이 감리교 순회의 요지이다.

이런 이해를 돕는 성서적 내용은 마태복음 28장과 고린도후서에 나온다. 예수께서 사도들을 모든 나라에 나가 제자삼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키우는 책임을 부여받고, 그들이 전에 가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세상의 일부를 돌아다녔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도들은 유럽, 중동, 아시아 남부를 두루 순회하였던 것이다.

웨슬리 전도자들이 했던 운동도 같은 기반위에 서있었다. 그래서 웨슬리 전도자들은 두가지 방법을 택하여 돌아다녔다. 첫번째 방식은, 영국과 아일랜드의 지역들로 나갔는데, 거의 매년마다 새로운 곳으로 파송을 받았다. 두번째 방식은, 그들이 파송받은 지방에서 순회사역을 담당했다. 미국의 감리교회에서는 안수받은 목사들이 “순회전도자 (traveling preacher)” 로 순회하였고, <장정>에는 그러한 장로를 “선교적 안수직 (missional order)”으로 나온다.

연합감리교회는 목회자의 은사와 은혜와 능력에 맞고 필요한 교회와 사역에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효육성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순회제도를 고안하였다. 이 제도는 감리교회가 지닌 사도적 선교와 안수간의 관계 이해에 기초를 두고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를 통해 변화를 거듭하였다.

V.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신학과 미래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본 문서는 안수사역에 관한 신학을 분명히 하려는데 있으므로, 지도력 제도를 선교적 사명에 더 효과적으로 맞도록 하려면 어떻게 재구성하고 재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폭넓게 대화의 장을 갖는데 우리의 의도가 있다. 우리가 전수받은 사역의 모델들은 크게보면 20세기의 산물이라서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연합감리교회 부흥을 위해서 역사를 살펴보면 기존의 이정표가 나온다. 감리교 운동의 역사적인 적응력을 배워서, 이런 “전통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구조로 미래의 혁신된 교회를 그려볼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평신도가 이끌어가는 사도적 사역

감리교회는 원래 평신도들이 이끌어가는 운동이었다.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미국 개척시대때 웨슬리 운동의 전도자들 대부분이 수명의 여성을 포함해서 평신도이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갔다. 예를 들면, 새 교회를 세울 때마다 교회

생존 능력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바로 목사에 대한 생활비 지원 능력이 교회에 있는가를 의미한다. 목사의 생활비 지원 능력이 왜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의 선교는 평신도목사 (lay pastor)들이 담당했었는데, 이런 평신도 목사가 “본처목사 (local pastor)”라는 아이디어로 바뀌어 1976년도 장정에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목사가 아직도 연합감리교회에 존재하고 있는데, 바로 해외지역총회 교회들이다.

- 평신도 사역의 역사적 전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아직도 남아있는 평신도 주도의 사도적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과 유대를 맺고 유추해보면 무슨 방법으로 교회를 갱신할 수 있을까?
- 개체교회 안팎으로 현재 일고 있는 교회 갱신 혹은 대체 교회 (예를 들어 Missional Wisdom 이나 Fresh Expressions) 운동을 통해서 어떤 어떤 종류의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길을 배우고 만들어 갈 수 있을까?
- 안수받은 목사들이 개체교회를 섬기면서도 교회의 사도적 의식으로 아주 중요한 성례전 집전을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들은 무엇인가?
- 평신도가 주도하는 사도적 사역이 감리교회가 지녔던 독특한 정체성과 기풍이었는데, 이를 만들어 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내용들과 그것들을 형성하는 과정은 무엇일까? 평신도 주도의 사역에 필요한 책무의 내용은 무엇인가?
- 해외지역총회는 평신도목사들을 훈련시켜 파송하고 있는데 그들로 부터 배울 점은 무엇인가?

순회사역 (Circuits)에 기반을 둔 사역의 재활성화

순회사역은 웨슬리가 처음 만들어낸 순회 조직이다. 순회사역은 미국 식민지시대와 서부개척 당시 시대 상황과 잘 맞아서 성공하였다. 평신도전도인들로 시작했다가 그 이후엔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효율적이고 논리에 맞게 지역에 파송받고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성례를 집전하였다.

- 이처럼 순회사역에 기초한 사역을 다시 활성화 한다면 지정된 지방에서 이미 하고 있던 선교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 교회들간의 협동사역의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서 안수받은 목회자를 어떻게 순방에 파송할 수 있을까?
- 협동적인 순회사역을 잘 유지하려면 어떤 경제적인 모델이 필요할까?
- 이처럼 새로 갱신된 순회사역이 어떻게 하면 개체교회들과 연회 - 지방회와의 연대 체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
- 작은 교회들의 경우 평신도 속회지도자들이 인도하여 웨슬리안 제자화의 중심이 되게 하고, 거기에 지역 순회사역에 파송된 안수목회자가 성례전을 인도하도록 하는 방식은 가능한가?

2017-2020년 <사역연구위원회> 보고서

- 어떻게 하면 안수목회자를 순회사역에 파송하여 평신도가 인도하는 교회들의 성례를 집전할 수 있을까?
- 해외지역총회는 순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순회사역의 재 활성화는 21세기에 평신도와 목회자 지도자를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다.

- 순회사역에 파송된 안수받은 목회자가 안수 과정에 있는 학생목사들을 위하여 연수교육과정과 신학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그들의 멘토와 교사로서 섬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 어떻게 하면 순회사역이 학생과 주재목회자(resident clergy)가 형성 과정에 독립심에 기초한 양심적인 공유된 사역을 개발하여 형성공동체(formational community)를 만들 수 있을까?
- 이런 형성과정에서 어떤 혜택의 원칙들이 견습생에게 주어질 것인가?-
- 신학교의 교과목과 연수교육과정에서 특히 실천신학 분야를 이와 같은 형성배움공동체(formational learning community)를 실습 현장으로 삼을 수 있는가?
- 가르침에 은사가 있는 목회자를 순회사역에 파송하여 형성배움공동체를 주도하게 하여 그를 현장교수(extension faculty)로 준비 시키려면 어떻게 하는가?
- 순회사역에서 목회자 형성이 해외지역총회에 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인허, 안수와 성례 집전의 권위

사역을 위한 인허는 영국에서 시작되었는데, 1600년대 후기에 영국교회가 아닌 비국교 신앙그룹들을 허락 혹은 불허하는 방식이 필요해서 나왔다. 그래서 이 방식은 교회가 아닌 정부로부터 시작되었고, 나중에 주정부를 대신해서 결혼 주례의 허가로 까지 이르렀다. 미국에서는 이런 기준이 뒤바뀌어 교회가 면허를 발행하고, 주정부가 주례자의 적격여부를 정하는 방식이 되었다. 안수를 대해서 나온 목회자 인허는 20세기의 혁신이며 1939년도 장정에 임시 규정으로 수록되어 있다. 1979년이 되어서야 “본처목사” 제도가 표준화되어 본처목사들은 그들이 파송된 곳에서만 성례를 집전할 책임이 주어졌다.

존 웨슬리는 안수받지 않은 전도인들이 성례를 집전하는데 동의하지 않았고, 영국교회도 성찬식을 성직자들이 교회 밖에서 집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평신도 전도인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례 집전 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 예외가 메릴랜드로 이주한 아일랜드 출신 평신도 전도인이었던 로버트 스트로브리지(Robert Strawbridge)이다. 이처럼 예외가 된 배경을 보면 정치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웨슬리가 왓코트(Whatcoat)와 베이시(Vasey)를 안수하여 새로운 땅 미국에 토마스 콕이랑 파견할 때, 미국에서도 성례를 집전할 사람이 필요했다. 이 시기에 미국의 감리교 운동이 영국교회와의 연결고리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웨슬리가 평신도인 스트

로브리지가 성례를 집전한 경우가 평신도도 성례를 집전할 수 있다는 청사진이 아니었다는 데 있다. 대신에 웨슬리는 영국교회와의 언약을 깨고 본인이 안수를 주는 권한을 선택했다. 웨슬리에게 성례전의 권위는 안수받은 자에게 속한다.

- 성례 집전을 인허가 아니라 안수받은 사람의 권한으로 인정하는 웨슬리 전통과 교회연합의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무엇이 함축되어 있는가?
- 집사와 장로의 사역의 이해를 어떻게 재 규정해야 하는가?
- 안수직 안에서 성약과 상호 책무의 본질은 무엇인가
- 교회의 성례 생활을 극대화 하려면 어떻게 집사와 장로가 각기 특이하면서도 보완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

본처목회자(local clergy)와 순회목회자(traveling clergy)의 다름을 회복하다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 초기에 본처집사(local deacons)와 장로들은 순회하지 않더라도 안수를 받았다. 본처(Location)이란 용어는 지금도 사용하며, 목회자가 순회사역 설교자의 대열에 끼지 않았어도 교회에 파송받을 수 있었다. 본처장로들과 집사들은 순회장로와 집사들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그들 모두 순회사역 장로에게만 주어진 주재장로가 그들을 감독하고 관리하였다.

1939년 교단이 통합될 때에 본처집사와 본처장로 제도가 지속되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교육수준 이수가 높아지고, 순회와 연회원 관계이다. 본처목회자는 순회하지 않고, 계삭회와 지방회의 회원이 되었다. 반면에 순회목회자는 순회하였고 연회원이 되었다. 이러한 본처목회자와 순회목회자의 공적인 구분이 1968년 연합감리교회로 통합되면서 사라졌다. 1996년에 물론 안수받은 집사가 비순회 목회자 범주에 추가되었다. 그래서 안수후보자는 안수받은 집사와 순회목회자의 구분을 잘 헤아려자신이 어디 방향으로 가야할지 정해야 하였다.

- 본처목회자와 순회목회자의 구분을 부활시키는 것이 교회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 웨슬리 뿌리를 지속시킨다?
 - 감리교 전통을 다시 이어간다?
 - 교회연합의 교회들과 더 관계가 지속되다?
 - 신학과 실천 사이의 불협화음을 없앤다?
 - 해외지역총회와 선교연회들에게 더 융통성이 생긴다?
 - 파트타임이나 두개의 직업 사역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전환할 때의 문제점들

미래를 내다 보면, 교회가 역사와 신학을 통해 배운 교훈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우리는 전환할 때 나올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질문들을 던지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물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허받은 본처목사”를 “안수받은 본처목회자”로

2017-2020년 <사역연구위원회> 보고서

- 바꾸려면 어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가?
 - 언제 안수를 주는가? “본처” 안수 자격에 필요한 교육과 형성과정은 무엇인가?
 - 신학석사 (M. Div)와 이와 동등
 - 학사학위 소지자로 연수교육과정 (Courses of Study) 이수
 - 현장교수의 견습하에 순회사역 지역에서 목회 실습
 - 안수사역부의 시험과 인정
 - 해외지역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 신학대학원의 커리큘럼과 연수교육과정에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
 - 본처목회자로 준비시키기 위해 연수교육과정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신학대학원에서의 교육을 잘 권장할 수 있을까?
 - 본처장로와 본처집사의 연회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연회의 협동회원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현재의 형태에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 본처 안수가 순회가 제한된 목회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본처목회자가 섬길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 순회지역 내에 있는 교회
 - 자립할 수 있는 대안 모델을 가지고 시작된 사역들
 - 동반자 사역
 - 이중 직업이나 파트 타임 사역
 - 또 다른 방식으로 무엇이 있는가?
 - 파송 모델의 융통성과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대체 모델에 중점을 두면 본처목회자에게 파송의 보장이 필요하거나 이득이 되는가?
 - 인허받은 본처목사들이 안수로 전환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 안수를 선택하면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 안수를 택하지 않거나 안수사역부가 거부한 경우엔 어찌되는가?
 - 이런 변화가 현재 인허받은 본처목사에게 의존하는 연회와 지방회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 이와같이 순회사역에 중점을 두게 되면 성례의 집전 필요에 적절히 대응한다고 보는가?
 - 순회사역과 관련되어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평신도가 이끄는 웨슬리식 속회기반 “교회들” 제도를 구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이런 변화가 해외지역총회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가?
- 순회목회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 순회목회자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그들이 본처목회자와 어떻게 다른가?
 - 정회원이 되려면 어떤 의식이 (있다면) 필요한가?
- 정회원은 파송의 보장이 되어야 하는가?
 - 정회원은 꼭 순회를 기대해야 하는가?
 - “본처” (협동회원) 목회자가 정회원으로 이동할 때에 “순회” 목회자로 파송 받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전환 과정이 필요한가?
 - 상급연수교육과정 (M.Div 신학석사와 동등한 자격이 없는 경우)
 - 안수사역부의 시험과 승인
 - 감독에 의한 역사적 질문 (웨슬리의 질문)
 - 목회자 회의에서 통과
 - 다른 조건들?
 - 이런 전환 과정에서 주재 과정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주재 프로그램의 가장 좋은 접근 방식 무엇인가? 추가 교육 준비 (신학대학원 그 이상) 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아님 형성 사역에 두는가?
 - 의사 제도의 주치의(attending)처럼 견습생 모델을 사용해서 “주치(attending)” 목회자로 본다면 어떤 혜택이 있게 되나?
 - 주재 목회자이고 정회원을 추구하는 경우 파송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 순회목회자는 정회원으로 남아있으면서 “본처” 파송 (예: 이중 직업 혹은 파트 타임)을 택할 수 있는가?
 - 정회원 목회자가 안수 신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처” 파송을 위해 협동회원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가?
 - 8년간 검사
 - 동료 검사
 - 감독과 감리사의 검사
 - 휴직과 해임
 - 그외 상황
 - 안수와 정회원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해외중앙총회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VI. 결론

감리교인들은 역사적으로 선교지를 교회의 실천방식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며 우선시 했다. 그 결과로 안수받지 않는 경우, 곧 본처목사들이 인허만으로도 성례 집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안수받은 집사들은 순회원의 성례 집전 권위를 인정받았다. 그렇게 되자 연합감리교회의 성례 집전 권위는 사도적 전통에서 빛나갔다. 더욱이 우리 교단의 창립자가 가졌던 신학적 비전에서도 빛나갔다. 존 웨슬리는 남녀 평신도들을 자유로이 전도 사역에 보냈지만, 성례 집전 만 큼은 성직자 사역으로 구분시켰다. 아이러니하게 그가 지닌 이러한 신학적 신념 때문에 결국 그는 자신이 안수를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교회에 대한 우리가 갖는 물음들은 안수와 성례 생활 사이의 관계에서 전통을 유지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선교에 부응하는 교회로 새로운 모양새를 갖추는데 도움이 되었다.

결론으로, 안수의 건전한 신학 정책을 재정립

2017-2020년 <사역연구위원회> 보고서

할 필요성을 갖고 동시에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적 상황에서 대처하면서도 혁신적인 가능성을 교회에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교회의 사역분야에 질서를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웨슬리의 강점은 자신이 지닌 강한 신학적 뿌리를 지키면서도 사역에 필요한 새 접근방식을 창출하는 능력에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전통을 지키면서 동시에 21세기 세계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역 부분을 재질서화 하기 위해 폭넓은 대화가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7-2020년 <사역연구위원회> 보고서

GLOSSARY (용어집)

A Sacred Trust: A Theological Framework for Ordained Ministry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신성한 신뢰: 연합감리교회 안수사역의 신학적 틀¹

Accountability	책무
Advanced Course of Study	상급연수교육과정
Administrative Location	해임조치
Appoint. beyond the Local Church	특별 파송
Associate Member	준회원
Book of Discipline	<장정>
Board of Ordained Ministry	안수사역부, 연회안수사역부
Candidate for Ordained Ministry	안수사역 후보자
Candidacy Studies	사역후보자 교육과정
Central Conference	해외지역총회
Central Conference Standing Com. on Central Conf. Matters	해외지역총회상임사무위원회
Circuit	순회사역
Class	속회
Clergy	목회자
Committee on Faith and Order	교회신앙연구위원회
Committee on Lay Servant Ministry	평신도사역직위원회
Committee on Pastor-Parish Relations	목회위원회
Committee on Theological Education	신학교육위원회
Connectional	연대성, 연대적
Connectional Principle	연대원칙
Connectional Process Team	연대체제 연구팀
Connectional Table	연대사역협의회
Consecration	성별(식)
Continuing Formation	지속적인 형성
Co-pastor	공사목사
Course of Study	연수교육과정
Council on Ministries	사역협의회
Covenant	성약
Covenanting Church	성약체결교회
Covenant Community	성약공동체
Covenant Discipleship Group	성약체결 그룹
Covenanting	성약체결
Deacon	집사
Deaconess	디크네스
Diaconal Minister	평신도 집사
Diaconal Ministry	평신도 집사 (사역, 직)
District	지방
District Committee on Ordained Ministry	지방안수사역위원회
District Superintendent	지방감리사
Director of Connectional Ministry	연대사역 총무
Division of Ordained Ministry	안수사역국

1 For this particular document, the following glossary is compiled into Korean.

2017-2020년 <사역연구위원회> 보고서

Elder	장로
Excellence in Clergy Leadership Scholarship	
Ecumenical	교회연합의, 에큐메니칼
Endorsement	인준
Ex-officio	직책상
Extension Ministry	연장사역
Faith and Order Committee	<교회신앙연구위원회>
Foundational Studies for Diaconal Minister	평신도 집사 기본연구과정
General Book of Disciple	<일반 정경>
General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Ministry	<고등교육성직부>
General Rule of Discipleship	제자직 총칙
Home Missioner	국내선교동역자
Home Missionary	국내선교사
License	인허
Itineration	순회
Itinerary (Itinerant System)	순회제도, 파송제도
Itinerant Ministry	순회전도자
Itinerant Preacher	순회전도자
Itinerant Superintendency	순회감리제도
Jurisdiction	지역, 지역총회
Lay Leader	평신도대표
Lay Minister	전도사
Lay Missioner	평신도 선교동역자
Lay Preacher	평신도 전도인
Lay Servant	평신도 사역자
Lay Speaker	평신도 설교자
License	인허(증)
Local Pastor	본처목사
Local Preacher	본처전도사
Location	해임
Members at Large	추가위(회)원
Mentor	멘토
Minister	
성직자	
Ministerial Education Fund	교역자양성기금
Minister of Full Connection	정회원 목사
Ministerial Support	목사후원(비)
Mission	선교(구)
Non-Disciplinary Resolution	비규율
Office of Loans and Scholarships	장학대부금관리실
Ordained Ministry	안수사역(직), 교역(직)
Order	안수직, 안수회, 치리, 법규
Order of Deacon	집사직, 집사회
Order of Elder	장로직, 장로회

2017-2020년 <사역연구위원회> 보고서

Parish	목회구역, 교구
Pastor	목사
Pastoral Charge	목회구역
Personal Leave	일신상 휴직
Polity	정체
Probationary Member	준회원
Professional Ministry Career	전문사역지
Professional Certification	전문사역자자격증
Provisional Elder	준회원 장로
Resident Bishop	주재감독
Restrictive Rule	제한규정*
Retired Minister	은퇴 사역
Rule of Life	생활 규칙
Society	신도회
Standing Committee on Central Conference Matters	<해외지역총회사무상임위원회
2017-2020 Study of Ministry Commission (SMC)	목회연구 특위
Task Force	특별 전문위원회
Teaching Parish	교육 교구
Traveling Clergy	순회목회자
Traveling Preacher	순회전도인